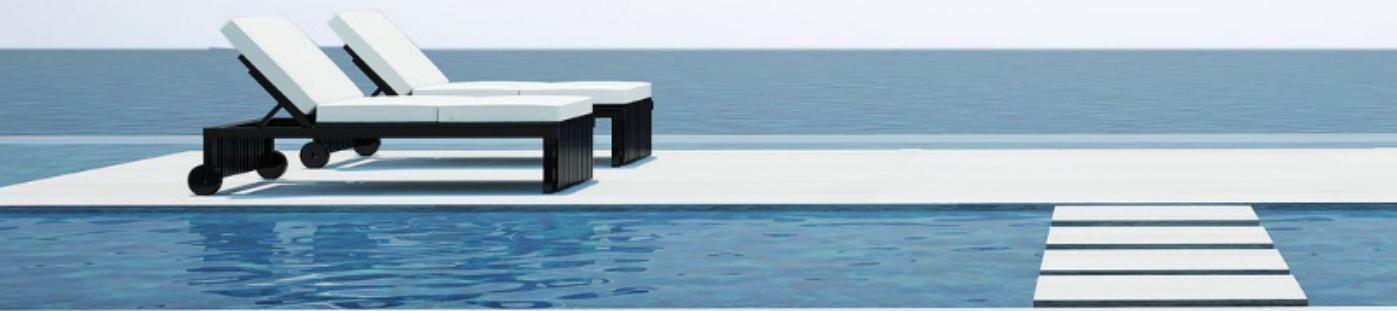


목차

01 교통·관광 및 서비스 산업 – 이동, 체류, 경험, 전 과정이 라이프 인프라로 변모	03
(1) 시니어 레지던스형 복합 리조트 등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	04
(2) 올 인클루시브 및 개인화된 여행 경험 강화	05
(3) 디지털·스마트 관광 인프라 확충	07
(4) SAF(지속가능항공연료) 의무화 대응	08
(5) 차세대 항공기 도입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09
02 교통·관광 및 서비스 산업의 대응 전략 방향	11



01. 교통·관광 및 서비스 산업

- 이동, 체류, 경험, 전 과정이 라이프 인프라로 변모

**교통·관광·서비스 산업은 더 이상 개별 산업이 아니라,
'이동, 체류, 경험'을 연결하는 하나의 라이프 인프라 (Life Infrastructure)로 진화하고 있다.**

교통 산업은 일반적으로 항공·철도·도로·해운 및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하며, 사람과 상품의 이동을 담당한다. 이 때 교통 소비자들이 이 이동 과정이나 출·도착지에서 숙박·외식·레저와 호텔·리조트·MICE·문화 콘텐츠 등의 경험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영역이 관광 산업이며, 이들의 이동과 체류 및 경험 전반에 걸쳐 안전과 편의 등을 지원하는 시설·인프라의 확충과 운영 활동을 포함하는 분야를 서비스 산업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¹ 따라서 교통·관광·서비스 산업은 소비자 경험 수요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높고, 각 개별 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상호 연계 및 확장에 따라 사업 형태가 다각화 되는 특징을 지닌다.

올해 교통·관광·서비스 산업은 단순한 이동과 숙박 중심의 여행 수요 대응에서 벗어나, 장기체류와 건강 관리, 문화·여가가 결합된 서비스 모델로 변모하고 있다. 초 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시니어 레지던스형 리조트와 의료·요양·관광이 결합된 복합 리조트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한편, 글로벌 여행업계는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올 인클루시브(All-inclusive)와 초개인화 여행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AI 기반 맞춤형 추천, 자동화된 예약·결제 시스템, 로열티 데이터 통합을 통해 여행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같은 디지털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면서, 교통·관광·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 또한 한 층 더 가속화되고 있다. 스마트 공항과 항만, 자율주행 셔틀, 지역 관광 데이터 허브 등 스마트 관광 인프라의 확충이 중앙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교통·관광·서비스 산업도 그 영향 범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항공 업계는 SAF(지속가능항공연료) 사용 의무화에 직면해 기술과 비용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은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차세대 항공기 도입, 글로벌 운항 네트워크 강화, 스마트 관광 거점 도시 육성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교통·관광·서비스 산업은 지속가능성, 개인화,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개인의 삶과 경험 전반을 아우르는 라이프 인프라(Life Infra.)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림 1. 교통·관광 및 서비스 산업 트렌드



(1) 시니어 레지던스형 복합 리조트 등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 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 고령층 중에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로 지칭되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휴식과 이동 중심의 관광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장기 체류와 요양·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레지던스형 리조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이다.²

포스코 이앤씨,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는 요양·헬스케어·웰니스 전문기업과 협력하며, 주거·의료·케어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복합 리조트 단지를 개발 중이다. 이들은 수도권 및 제주·강릉·여수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임대·위탁운영 방식의 시범 단지를 착공하고 있으며, 단순 숙박 시설을 넘어 의료, 운동, 식음, 문화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³ 리조트·호텔업계도 마찬가지로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의료·재활·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⁴ 이 같은 변화는 관광 산업이 부동산 개발 중심의 리조트 개발 산업이 아니라 복지와 의료 및 관광지 개발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변화는 부동산 및 건설 기업들의 신규 프로젝트 수준이 아니라, 관광 산업의 구조 자체가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광 산업이 더 이상 여행·숙박 중심의 단일 산업이 아니라, 주거·헬스케어·요양·문화·레저·지역 개발을 아우르는 복합 서비스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다.

2026년에는 시니어 계층에게 관광의 목적이 방문(Visit)에서 체류(Stay)로, 다시 새로운 장소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여행과 주거의 경계가 희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니어 레지던스형 복합 리조트가 새로운 관광 산업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앞으로의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누가 더 좋은 건물을 짓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삶의 경험을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표 1. 시니어 레지던스형 복합리조트 개발 트렌드와 변화 대응방안 요약

 주요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주거, 케어, 의료 전문기업과 협력해 시니어 레지던스 및 복합 리조트 사업 본격 추진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통합형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공간 수요 증가
 변화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 맞춤 주거·의료·케어 서비스 통합과 차별화된 운영 시스템 구축 • 고령층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발맞춘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개발 • 규제 환경 및 지역사회 요구사항 대응을 위한 유연한 전략 수립



(2) 올 인클루시브 및 개인화된 여행 경험 강화

여행객의 기대가 '어디로 갈까' 보다 '어떻게 머물까'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변해 가면서, 호텔·여행 업계가 지향하는 서비스 표준이 '올 인클루시브'(All-Inclusive) 와 '맞춤형 여행 경험'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먼저 여행객들은 기존 관광 중심의 여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로와 시간 제약에 대해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을 뿐더러, 여행객이 처한 상황과 요구에 맞는 편의 서비스 제공이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 인클루시브(All-Inclusive) 여행 모델은 숙박·식음(F&B)·레저·액티비티·웰니스·스파, 문화 프로그램 등 여행의 전 과정을 하나의 가격에 통합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복잡성을 줄이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도 만족도 높은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한다. 올인클루시브 여행의 최대 장점은 무엇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할지, 추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 여행과 같이 서로 다른 세대와 함께 하는 경우, 온 가족이 같은 일정에 둑여 이동할 필요 없이 각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주어진다. 장거리, 장기간의 여행 일정에서 휴식과 경험을 조화롭게 나누고 싶은 여행객에게 좋은 선택지이다. 국내의 경우 부산의 아난티,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롯데호텔 제주 등의 호텔이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대비 2배이상의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다.⁵ 한편, 최근 여행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개인화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획일적인 상품보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취향·건강상태에 최적화된 여행 경험을 선호하고 있으며, 호텔과 OTA(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 Online Travel Agency)들은 AI 추천 알고리즘, 고객 데이터 분석 기반 일정 설계, 취향 맞춤 객실 옵션·식단 서비스 등 초기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⁶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듯 최근 슬로우 트래블, 반려동물 동반 여행, 디지털 디톡스 등과 같은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 **슬로우 트래블(Slow Travel):** 빠른 이동보다 머무름과 지역 체험을 중시하며, 일·여가 병행(Workation) 수요와 결합해 장기 체류형 여행
- **반려동물 동반 여행(Pet-inclusive Travel):**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펫과의 정서적 유대가 강화되면서, 펫 동반 호텔, 레스토랑, 레저 시설 등으로의 여행
-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 디지털 과부하에 따른 휴식 욕구가 커지면서 자연 속 명상, 책 읽기, 아날로그 체험, 조용한 리트리트(Quiet Retreat) 등 디지털 차단형 프로그램을 즐기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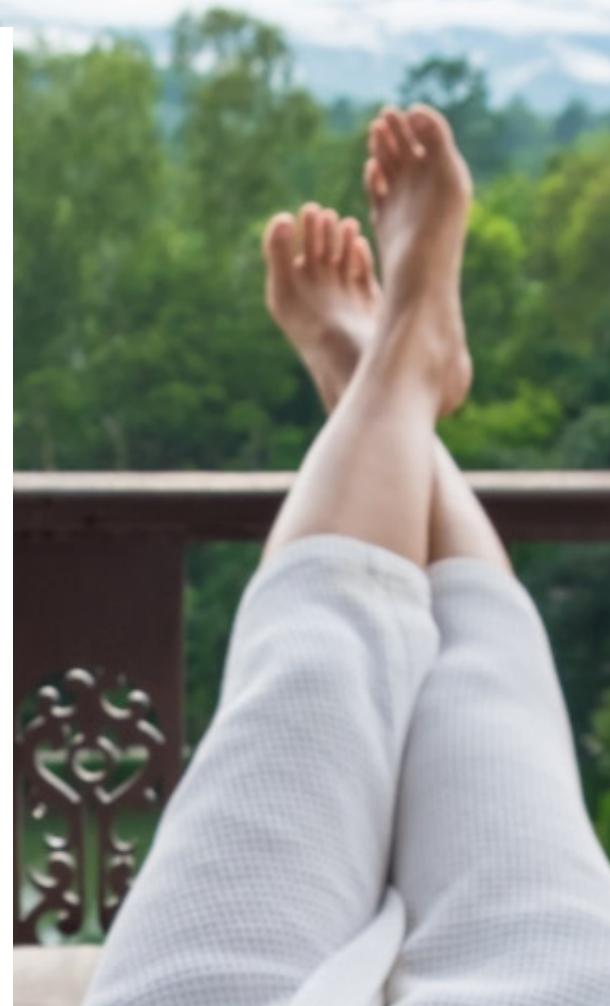
표 2. 올 인클루시브 및 개인화된 여행 경험 강화 트렌드와 대응방안

주요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및 여행업계에서 올 인클루시브(All-Inclusive) 및 개인화된 여행 경험 강화 트렌드 확산 • 슬로우 트래블, 반려동물 동반 여행, 디지털 디톡스 등 새로운 여행 키워드가 고객 수요로 부상
변화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세분화, 맞춤형 서비스 설계, 마케팅 전략 수립 •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 상품 구성과 서비스 품질 유지 및 개선 • 반려동물 친화 시설 및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등 새로운 서비스 인프라 확충

2026년에는 올 인클루시브 및 개인화 여행이 호텔 업계의 표준 서비스(Standard Offering)가 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요구가 증가하면서 식단, 건강관리, 수면 패턴, 여행 스타일, 이동 선호도 등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실 배정·액티비티 제안·시간대별 일정까지 자동 최적화하는 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다.

둘째, 체류형 여행의 고급화가 진행될 것이다. 프리미엄 리조트, 부티크 호텔, 장기 체류형 레지던스가 올 인클루시브 모델을 도입해, 고객당 매출(ARPU)을 높이고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셋째, 반려동물 동반 여행과 디지털 디톡스는 단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 세분화 기반 핵심 상품군(Segment-Focused Core Product)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반려동물 돌봄·스파·식음·운동프로그램, 디톡스 전용 리트리트 등 고도화된 옵션이 등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OTA(온라인 여행 플랫폼)와 호텔·리조트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객 여정 전 과정(검색 → 예약 → 체크인 → 체류 → 사후 경험관리)을 통합 관리하는 One-Stop Travel Ecosystem 구축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결국 여행의 중심은 '더 많이 소비하는 여행'에서 '더 깊고 편안하며, 나에게 맞는 여행'으로 이동하고 있다. 올 인클루시브 모델과 개인화 서비스는 이러한 변화된 수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3) 디지털·스마트 관광 인프라 확충

관광업계에서는 모바일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관광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항공, 호텔, 리조트 등에서는 모바일 체크인, 디지털 탑승권, 모바일 키, 키오스크 등의 도입으로 고객들이 비대면으로 체크인, 탑승, 입실,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한다.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 항공 운송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여행객의 54%가 항공사 웹사이트 보다 모바일 앱을 더 선호하며, 공항 여정 전반에서 디지털 ID와 바이오메트릭스를 활용하는 비중도 크게 늘고 있다.⁷ 호텔·리조트 업계에서도 모바일 앱을 통한 디지털 체크인, 모바일 룸키, 객실 내 조명·온도·엔터테인먼트 제어, 비대면 컨시어지 서비스가 표준 기술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⁸ 한국 정부는 스마트관광도시 사업과 연계해 디지털 안내 시스템, 교통·관광 정보 통합 앱, 스마트 키오스크 등이 주요 도시와 관광 거점에 설치되며, 다국어·위치 기반 추천·교통·쇼핑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있다.⁹

2026년에는 디지털·스마트 관광 인프라가 현재의 개별 기능 중심 도입 단계에서 벗어나, 플랫폼 기반·도시 단위 통합 운영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항공·공항 영역에서는 모바일 탑승권, 디지털 ID, 얼굴·지문 기반 생체인식 등 원패스(One-ID) 기반 통합 여정이 본격 확산되며, 체크인·보안검색·탑승에 이르는 전체 공항 과정을 대폭 단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호텔·리조트에서도 모바일 키,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가 기본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프론트 데스크는 객실 배정 창구에서 벗어나 상담·컨시어지 기능 중심의 허브형 운영체계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이 추진 중인 스마트관광도시 및 K-스마트시티 사업과 맞물려, 교통·관광지·상권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도시 단위 관광 데이터 허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관광공사·민간 플랫폼 간 데이터 연계가 강화되면 방문객 흐름 분석, 혼잡도 관리, 맞춤형 추천, 수요 예측 등이 더욱 정교해지며, 관광지 운영 효율과 고객 경험 모두가 개선될 것이다. 더불어 AI의 역할도 단순 추천 기능을 넘어 에이전틱(Agentic)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 전(검색·기획)부터 여행 중(이동·예약·현지 추천), 여행 후(리뷰·로열티 관리)까지 전 여정을 AI가 '여행 어시스턴트'처럼 실시간으로 지원하며, 여행객은 상황에 최적화된 선택을 즉시 안내받는 지능형 여행 경험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2026년의 디지털·스마트 관광은 개별 기업 단위의 디지털화 수준을 넘어, '데이터·플랫폼·도시 인프라가 연결된 관광 생태계'로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다.



표 3. 디지털·스마트 관광 인프라 확충 트렌드와 변화 대응 방안 요약

주요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 체크인, 디지털 탑승권 등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성 향상 AI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확대
변화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관광 플랫폼 개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전략 수립 데이터 품질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 관광 데이터 통합 관리 및 분석 역량 구축



(4) SAF(지속가능항공연료) 의무화 대응

우리나라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지속가능항공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혼합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초기 혼합 비율은 1%로 설정되며,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¹⁰ 이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SAF 혼합 의무화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SAF 얼라이언스'를 설립해 항공 및 정유 산업과 연계한 공급망 구축과 사용 촉진을 추진 중이다.¹¹

이 조치로 정유업계와 항공사는 SAF 공급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정유사인 GS칼텍스는 핀란드 네스테에서 생산한 SAF를 도입해 대한항공에 공급하며 시범 운항을 진행했으며, 국내 소재 기업들도 해외에 SAF 생산시설을 검토하는 등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¹² 다만 SAF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기존 항공유 대비 비용이 상당히 높고 공급망도 한정적이라, 항공사와 에너지 기업에 공급 리스크와 가격 상승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도의 유연성 확보, 이행 유예, 인센티브 제공(예: 운수권 배분 가점, 승객 기여 보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¹³

2026년에는 SAF(지속가능항공연료) 관련 제도와 산업 구조가 더욱 명확해지면서 국내 항공 유류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먼저, SAF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국내 에너지·바이오연료 기업들은 생산시설 확대와 해외 제휴·투자에 속도를 내며 공급망 국내화와 대규모 생산 역량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혼합 연료 기준과 탄소감축량 인증, 품질 기준, 혼합비 가중치 등 세부 인증·규제 체계가 2026년 안에 정비되면서 SAF 사용에 대한 산업 표준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¹⁴ 항공사 입장에서는 SAF 혼합 비율이 높아질수록 연료비 상승 압박과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는 만큼, 장기 공급계약 확보, 조달 다변화, 연료효율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 역시 혼합 의무화와 함께 보조금·배출권 인센티브 등을 병행하면서, 업계의 적응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시장·정책 간 균형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SAF 혼합 의무화는 항공 산업이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이며, 2025년이 정책 기반이 마련된 시기였다면, 2026년은 공급망 구축·규제 정비·비용 구조 재설계가 본격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항공업계의 경쟁력은 공급망 확보, 비용관리, 기술 효율화의 삼각축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빠르게 실행하는 항공사와 에너지 기업이 향후 저탄소 항공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표 4. SAF(지속가능항공연료)의무화 대응 트렌드와 변화 대응방안 요약

 주요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 전 항공기에 SAF 1% 혼합 의무를 부과할 예정항공사 및 에너지 기업들은 SAF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에 투자 중
 변화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SAF 공급망 구축, 정책 대응 전략 수립,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SAF 도입 확대로 인한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비용 부담 최소화와 효율적 연료 혼합 기술 개발

(5) 차세대 항공기 도입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수요 회복과 경쟁 심화 속에서 차세대 항공기 도입과 글로벌 노선 최적화 전략이 항공 산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연료 효율이 뛰어나고 운항 비용이 낮은 신형 기종을 확보하며, 장거리·중거리 네트워크 재편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은 Boeing 및 GE Aerospace와 협력해 2033년까지 총 40대의 차세대 항공기(20대 777-9 + 20대 787-10) 및 8기의 신형 엔진을 도입 할 계획을 발표했다.¹⁵ 이는 연료효율 개선, 탄소배출 감축, 유지비 절감 운항 안전성 강화 등 다각적인 효과를 거냥한 투자이다. 해외 주요 항공사들도 차세대 기종(A 350, B 787, A 321XLR 등)의 도입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와 코드셰어·조인트벤처(JV) 네트워크 확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노선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서, 공급망 리스크 대응, 수요 변동성 관리, 지역 거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까지 아우르고 있다.¹⁶ 특히 국제 항공 시장에서는 미주·동남아·유럽 노선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항공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구간에 신형 기재를 집중 투입하고,¹⁷ 수익이 낮은 노선은 기단을 재배치하거나 단거리 연결 노선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재편하고 있다.

2026년 항공 산업은 기단 현대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재편이 동시에 가속화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우선 연료 효율이 20~30% 향상되고 운항 안정성과 경비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차세대 항공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항공사 간 경쟁력 격차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321XLR, B787-10, A350-1000 등 중장거리 운항에 최적화된 기종은 새로운 직항 노선 개설을 가능하게 해, 장거리 프리미엄 시장에서 확실한 차별화 전략을 펼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존의 단일 항공사 중심 구조는 점차 약화되고, Alliance·조인트벤처(JV)·코드셰어 기반의 협업 경쟁 체계가 항공 산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2026년에는 노선 공동운항 확대, 공동 마케팅과 수요 예측 시스템의 통합, 기재 운용 공동 최적화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주요 지역 거점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협업 모델은 수요 변동성 대응, 공급망 안정성 확보, 노선 수익성 극대화 등에서 항공사마다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공급망 및 정비(MRO) 리스크는 항공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차세대 항공기 인도 지연, 엔진 정비 주기 증가, 글로벌 부품 공급망 병목 현상 등은 기단 운영 전략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PW·GE·Rolls-Royce 엔진을 중심으로 정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는 장기 계약 체결, 예비 부품 확보, 정비 용량 확대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표 5. 차세대 항공기 도입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트렌드와 변화 대응방안 요약

 주요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도입과 노선 최적화 전략 수립, 글로벌 파트너십 및 협력체계 구축 진행 • 대한항공은 보잉과 GE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하여 2033년까지 차세대 항공기 40대와 엔진 8대 도입 계획
 변화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협력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 노선 개발 및 최적화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와 경쟁력 확보 • 첨단 항공기 및 엔진 도입에 따른 기술 수용과 운영 효율화

항공사는 2026년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단·네트워크·기술을 아우르는 3중 전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글로벌 Alliance 및 주요 항공사와의 조인트벤처(JV), 코드셰어, 정비·운항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해 네트워크 효율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정비(MRO) 역량 강화, 예비 부품 확보, 엔진·부품 장기계약(LTSA) 체결 등을 통해 기단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역별 수요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수익성 중심의 네트워크 운영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노선 전략 측면에서는 미주 서부, 유럽 핵심 도시, 동남아 프리미엄 리조트 등 고수요 지역을 중심으로 직항 노선을 확대하고 중거리 연결 노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AI 기반 수요 분석을 활용해 노선별 좌석 구성, 기종 배치, 운항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함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거리 시장에서는 비즈니스 스위트, 프라이빗 공간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급화해 차별화된 수익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차세대 항공기의 엔진 성능·연료 효율·운항 안정성에 맞춰 운항·정비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기반 정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26년은 항공 산업이 차세대 기재 도입, 글로벌 네트워크 재편, 운영 및 기술 효율화라는 3단계 전략 방향으로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기단 현대화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정비·공급망 리스크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한 항공사가 향후 10년간 국제 항공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항공사는 3단계 전략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빠르게 실행하는 기업이 차세대 글로벌 항공 경쟁의 승자가 될 것이다.



02. 교통·관광 및 서비스 산업의 대응 전략 방향

교통·관광·서비스 산업은 이동·체류·경험 전 과정이 하나의 여정으로 통합되는 구조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객의 삶을 설계하는 인프라 산업(Life Infrastructure Industry)으로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 관광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단일 기능이 아닌 전체 고객 여정을 통합 설계하는 능력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동·숙박·의료·웰니스·문화 등을 하나의 여정으로 연결하는 통합형 서비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 체류와 웰니스 경험을 결합한 복합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고, 호텔·리조트·헬스케어·부동산 기업 간 제휴를 강화해 방문에서 체류, 나아가 라이프스타일 제공으로 이어지는 Life-as-a-Service 플랫폼을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여행 소비자들의 관광 서비스의 선택 기준이 '편리함'에서 '나에게 최적화된 경험'으로 변화하고 있어, AI·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AI 추천과 행동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여행 경험을 고도화하고, OTA·호텔·항공·현지 서비스 간 고객 데이터를 연동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슬로우 트래블, 반려동물 동반 여행, 디지털 디톡스 등 세분화된 테마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고, 일정·객실·식단·액티비티까지 개인의 취향에 맞춘 완전 맞춤형 여정을 설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초개인화 역량은 2026년 이후 고객 충성도와 재방문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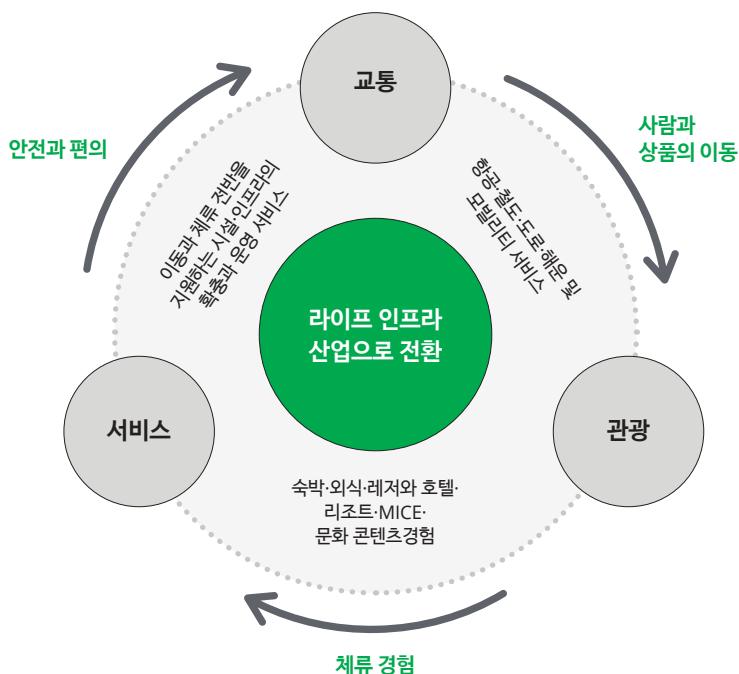
셋째, 디지털 전환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 관광 인프라 확장 역시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기업은 공항·호텔·교통·상권 데이터를 연결하는 스마트 관광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생체인증 기반 One-ID, 모바일 키, 디지털 결제 등 비대면 여정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공공기관·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에 참여하고, 방문객 흐름 예측, 혼잡도 관리, 실시간 추천 등 AI 기반 지능형 운영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 단위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성은 선택의 문제를 넘어 산업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다. SAF(지속가능항공연료) 도입 의무화는 항공사 뿐 아니라 관광·교통 생태계 전체의 비용 구조와 운영 방식을 재편하고 있어, 기업은 SAF 장기 조달 계약과 원료 확보·공급망 다변화를 포함한 친환경 연료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호텔·리조트·관광시설의 제로에너지 설비 투자, ESG 공시 체계의 고도화, 항공·정유·바이오·화학 기업 간 친환경 기술 협력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경쟁력은 2026년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투자 매력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복합 리조트, 웰니스 관광, 스마트 도시 서비스 등 새로운 수요의 확산은 교통·관광·헬스케어·부동산 간 산업 융합 생태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헬스케어·레저·부동산 개발 기업과의 융합형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호텔 운영 역량과 의료·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복합 플랫폼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지역 관광 및 도시 개발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액티브 시니어·반려 가족·디지털 디톡스 고객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고객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교통·관광·서비스 산업은 이제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 삶의 질을 설계하는 인프라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2026년 이후 이 시장의 주도권은 통합형 서비스, 초개인화, 스마트 인프라, 지속가능성, 그리고 산업 융합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림 2. 교통·관광 및 서비스 산업 구조와 미래 전략 방향



주석

1. Deloitte Insights (2025), Industry & Sector Description
2. 통계청 (2025), 2025 고령자 통계; 2023 노인실태 조사
3. 포스코그룹 뉴스룸(2025.03.06), 포스코이앤씨,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본격 진출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https://newsroom.posco.com>
4. 디지털 조선일보(2025.11.06), 호텔업계, '액티브 시니어' 겨냥한 웰니스 패키지 잇따라 출시, https://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5/11/06/2025110680056.html
5. 한국경제(2025.7.14), '극성수기'에 어디 갈까...호캉스도 '올인클루시브'가 뜬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1455647?utm>
6. Hotelbeds(2025.2.21), Hyper-Personalisation and AI in Hotels: Transforming Hospitality in 2025, <https://discover.hotelbeds.com/resources/insight/hyper-personalisation-ai-hotels?utm>
7. IATA(2025.11.6), IATA reports growing traveller use of smartphones and biometrics, <https://centreforaviation.com/news/iata-reports-growing-traveller-use-of-smartphones-and-biometrics-1337904?utm>
8. EHL Insights(2025.3.7) Key Hospitality Technology Trends to Watch in 2025, <https://hospitalityinsights.ehl.edu/technology-trends-hospitality-industry?utm>
9. 한국 방문위원회(2024.1.3), 스마트 관광 안내시스템, <https://vkc.or.kr/content/smart-tourist-information-system/>
10. GreenAir(2025.10.6) South Korea announces mandatory SAF blending for departing international flights from 2027, https://www.greenairnews.com/?p=8125&utm_
11. 조선비즈(2025.9.19), 한국, 2027년부터 국제선 운항에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혼합 의무화, https://biz.chosun.com/en/en-policy/2025/09/19/RNSAQRHSVJATLGOCVYKIDTDQ/?utm_
12. S&P Global(2025.11.5) South Korea's JC Chemical plans SAF facility in Malaysia,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news-research/latest-news/_refined-products/110525-south-koreas-jc-chemical-plans-saf-facility-in-malaysia?utm_
13. 한국항공협회(2025.9.19), 국내 출발 항공편,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날아오른다, 보도자료
14. Research Nester(2025),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시장 전망, <https://www.researchnester.com/kr/reports/sustainable-aviation-fuel-market/4881>
15. 매일경제신문(2025.3.22), 대한항공·보잉·GE, 워싱턴서 항공회담 개최 협력, 논의 항공기 계약 조기 확보 중장기 진입 계획 실행 "차세대 공군 도입, https://www.mk.co.kr/en/business/11270482?utm_
16. 비즈위치(2025, 9.24), 보잉코리아 사장 "韓은 세계 5위 공급망 거점"...투자·협력 늘린다, <https://v.daum.net/v/20250924151046420>
17. IAG(International Airlines Group) 2024 annual Report, <https://www.iairgroup.com/media/4qxgaavc/iag-annual-report-and-accounts-2024.pdf>

한국 딜로이트 그룹 산업 전문가

소비자 산업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에서 딜로이트 글로벌 소비자 산업 그룹은 독자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이 소비자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딜로이트가 보유한 연구, 인사이트, 혁신을 주요 비즈니스 과제에 연결함으로써 소비자 산업 전반의 가까운 미래와 그 이후를 위한 선도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딜로이트는 비즈니스 번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태환 파트너

소비자 산업 리더 | Deloitte Digital

02 6676 3756

taehwankim@deloitte.com

강동남 파트너

교통·관광 및 서비스 리더

02 6099 4831

donkang@deloitte.com

김경원 파트너

유통·소비재 산업 리더

02 6676 2322

kyungwkim@deloitte.com

한형주 파트너

유통·소비재 산업 | 경영자문 부문

02 6099 4496

hyunghan@deloitte.com

홍성탁 파트너

유통 산업 | 컨설팅 부문

02 6138 5112

sungthong@deloitte.com

김정민 파트너

소비재 산업 | 컨설팅 부문

02 6676 3379

jungminkim@deloitte.com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연구원

배순한 Director
soobae@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